

청소년 독서 수업 지도안 교사용

청소년 한 학기 한 권 읽기

작성 : 오요한(정신여자중학교 교사)



완벽한 사과는 없다

김혜진 지음

주제어 : 학교폭력, 양심, 사과, 용서,
책임, 피해자다움, 방관자

프인들

독서 계획

단계	활동 내용
독서 전 (독서 준비)	1. 책의 내용과 관련된 배경지식 활성화하기
독서 중 (책 속으로)	1. 독서 일지 작성하기 - 인상적 장면에 밑줄 치고, 메모하며 읽기 - 책의 내용과 관련된 경험을 떠올리며 읽기 2. 책 카드 만들기 - 독서 일지를 바탕으로 인상적인 구절 정리하기 - 구절과 어울리는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하여 카드 만들기 3. 소설 속 등장인물이 되어보기 - 독서 일지를 바탕으로 인상적인 장면 정리하기 - 소설 속 등장인물의 표정, 외모, 성격 상상하기 - 인상적인 장면을 연극 대본으로 바꾸고 역할극 해 보기 4. 미래의 나에게 전하는 말 - 독서 일지를 바탕으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경험 정리하기 -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미래의 나에게 당부하기
독서 후 (토론과 논술, 독후 활동)	1. '세 번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까닭 - '세 번째 사람'(방관자)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기 2. 지호에게 전하는 편지 - 소설 속 지민이가 되어 지호에게 편지쓰기

관련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 **읽기** : 읽기는 글에 나타난 정보와 독자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읽기를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 **문학** :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에 유의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인간의 성장을 다룬 작품을 읽으며 삶을 성찰하는 태도를 지닌다.

관련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 **자신과의 관계** : 본래적 가치에 근거한 삶의 목적 추구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을 도덕 공부를 통해 이해하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도덕적 이야기로 구성할 수 있다.
- **타인과의 관계** : 폭력의 결과를 상상해 보고 그 속에 내재한 비도덕성을 지적할 수 있고,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폭력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 책 소개 •

학교폭력 가해자가 나와 친했던 사람이라면?

“나는 작고 고요한 내 양심의 소리를 들으려 했다.”

어린 시절 지민과 지호는 애니메이션 <피노키오>를 보며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누어 놀았다. 피노키오의 양심이 되어 주던 작은 귀뚜라미, ‘지미니 크리켓’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지호의 양심을 맡아 버린 지민.

그러던 어느 날 언덕에서 보드를 타던 학생이 죽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의 가해자로 다름 아닌 지호가 지목된다. 무성한 소문 속에서 지호는 여러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버무려지고, 불현듯 지호의 양심과 마주한 지민은 진실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민이 알고 있던 지호의 모습과는 점점 멀어지는데…….

소설은 청소년 독자들에게 과연 ‘피해자다움’이란 무엇인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제3자는 ‘어디까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하는 화두를 던진다. 제목처럼 ‘완벽한 사과’는 없다’면 우리는 왜 사과를 해야 하는 걸까? 소설이 던지는 질문들은 그럼에도 계속되는 오늘을 살아나가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힘이 되어 줄 것이다.



독서전 독서 준비 : 책과 관련된 배경지식 활성화하기

1. 다음은 '사과'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사과받은 경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사과(謝過)
명사
1.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뵈.

예문) 사과를 받다.
나에게 실수한 일에 대해 그는 한마디 사과도 없다.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2. 1에서 나눈 이야기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가가 「완벽한 사과는 없다」라고 제목을 지은 까닭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3. 「완벽한 사과는 없다」는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지민이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양심의 모양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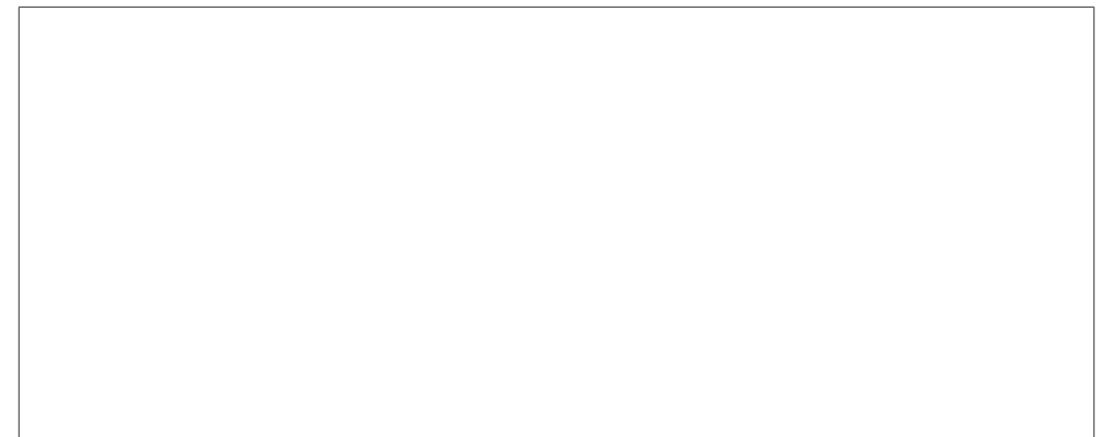
인디언들의 조상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림문자를 만들어 사용해 왔는데 많은 그림문자 중에 특히 사람의 양심을 '△(삼각형)'과 '○(원형)' 두 가지 그림문자로 그려 왔다고 한다.

그들은 아이들이 가슴 속에 삼각형 양심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아이들이 철 들면서 나쁜 생각이나 행동, 거짓말, 범죄 등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게 되면 가슴이 떨리고 마음이 아픈 것은 바로 이 삼각형 양심이 회전하면서 모서리로 가슴 속을 마구 파헤치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아이들이 성년으로 성장해 가는 동안 무수히 양심에 가책되는 일들을 반복하다 보니 삼각 모서리가 모두 닳아 없어져서 어른이 되었을 때는 삼각형이 원형으로 변화되고 원형 양심을 지닌 어른들은 아무리 부끄러운 일을 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양심을 두 그림글자로 구분해 어린아이의 양심은 '△(삼각형)'으로 어른의 양심은 '○(원형)'으로 표기했던 것이다.

-출처 : LA 중앙일보(2011.7.1)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219973)

- ① 내가 생각하는 양심의 모양을 그려 봅시다.



- ② ①과 같이 양심의 모양을 표현한 까닭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독서 중 책 속으로 : 독서 일지 작성하기

1.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인상적인 장면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메모해 보고, 소설의 내용과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며 책을 읽어 봅시다.

어디서부터 어긋난 건가. 그 편의점에서부터였다. 그 애들은 ‘신지호가 위험하게 보드를 타라고 강요한 바람에,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했다. 나는 지호가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다운이 초점을 맞춘 건 그 죽은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한 건 아니라고 지적하려 했던 것이다.

나는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 ‘선배’라는 사람을 위해.

다운은 내 얼굴을 살피더니 한풀 꺾인 태도로 말했다.

“리하는 뒷발 말고 다른 데는 안 나간대. 사람도 안 만나고, 나 말고도 또 누가 들르면 좋을 거 같아서……. 너도 선배랑 특별한 관계였으니까, 그게 우리의 공통점이니깐 관찰을 줄 알았어. 리하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내가 오버했네. 안 가도 돼, 불편하면?”

불편? 불편하면?

“야, 당연히 불편하지. 모르는 애니까. 그거 때문이 아니라고.”

내 말은 내가 들어도 진짜 같지 않았다.

‘가해자’인 지호만큼이나 ‘피해자’인 우리하에 대해서도 많은 소문이 떠돌았다. 소름 돋아 하면서, 재미있어 하면서 하는 말들. 남 일이라서, 실감이 나지 않아 쉽게 말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일 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

‘개도 정상은 아니었대.’

나는 소문 속에 묘사된 지호에 대해서만 분노했었다. 또 다른 등장인물인 우리하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은연중에 나도 그 애가 그런 얘기를 바랐던 것이다. 문제가 있는 애, 화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애. 그래야 지호에게 한 톨의 정당성이라도 부여될 것 같았으니까.

이제 우리하가 내 얼굴을 똑바로 보고 묻고 있는 것 같았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판단을 내릴 근거들은 긁어모을 수 없도록 산산이 흩어져 있었다.

지호, 다운, 우리하, 다운과 우리하의 ‘선배’, 그리고 나. 사람 사이에 이어진 선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얼마나 질기고 거칠고 혹은 연약한지, 얼마나 강하게 당기고 있는지 길으로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얽히고 조여, 살갓을 파고드는 아픔만은 생생했다.

(60~61쪽)

리하는 왜 뒷발 말고 다른 데는 나가지 않는 거지?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

예전에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

피해자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지민의 생각이 변화가 드러나 있어서 인상적이야.

2. 책을 읽으면서 작성한 메모와 떠올린 생각들을 독서 일지에 정리해 봅시다.

독서 일지(예시)

읽은 날짜	책 제목	작가	읽은 쪽수
2000.00.00	완벽한 사과는 없다	김혜진	~
책을 읽으며 정리한 내용			
인상 깊은 장면이나 구절	피해자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지민의 생각이 변화가 드러나 있어서 인상적이야.		
책을 읽으면서 생긴 질문	리하는 왜 뒷발 말고 다른 데는 나가지 않는 거지?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		
책 속의 내용과 관련된 경험	예전에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		



독서중 책 속으로 : 책 카드 만들기

1. 독서 일지를 참고하여, 인상 깊었던 구절과 그 까닭을 정리해 봅시다.

인상 깊은 구절	까닭
나는 내 양심의 소리를 들으려 했다.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를, 절대 무시하지 않고 듣고 따르려 했다. (64쪽)	어떤 상황에서도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이 멋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는, 무력하지 않다. (...) 가늘지만 질긴, 쉽게 구부러지지만 부서지지 않는, 지팡이처럼 디딜 수 있는 문장이었다. (93쪽)	'우리'가 무력하지 않다는 것이 지팡이처럼 의지가 되는 말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이었기 때문이다.

2. 1에서 정리한 내용과 어울리는 그림이나 사진을 찾아봅시다.

3.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책 카드를 만들어 봅시다.

 <p>나는 내 양심의 소리를 들으려 했다</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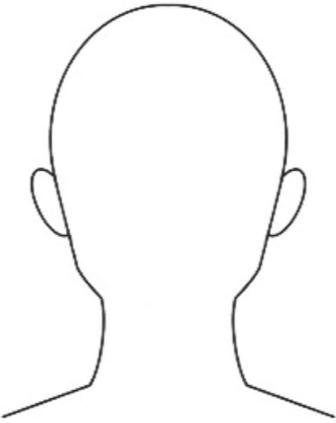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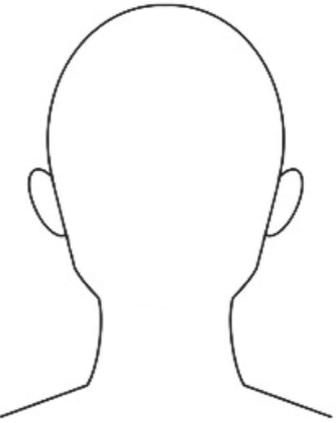


독서중 책 속으로 : 소설 속 등장인물이 되어보기

1. 독서 일지에 정리한 인상 깊은 장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친구들과 함께 고르고, 그 까닭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가장 인상 깊은 장면	까닭
지호와 지민이와의 관계에 대해 모두 알게 된 후, 지민이와 리하가 만나 서로 사과와 용서를 주고받는 장면	진정한 의미의 사과와 용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2. 1에서 선정한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과 성격을 상상해 보고, 다음 그림을 활용하여 표현해 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한 까닭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 이름:	▪ 이름:
▪ 표현한 까닭:	▪ 표현한 까닭:

3. 앞의 활동을 바탕으로 소설의 일부를 역할극으로 재구성해 보고, 실제로 연기해 봅시다.

① 다음을 참고하여 1에서 선정한 장면을 역할극 대본으로 바꿔 봅시다.

어떤 시간들은 이미 그 자체로 밀도가 높아서 구길 수도, 압축할 수도 없고, 그대로 수정 구슬처럼 묵직하게 남는다. 지호와 보낸 어린 시절이 그랬고 텃밭의 시간들이 그랬다.
 그리고 지금이 그랬다.
 리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그러곤 말했다.
 “다시 말해 봐.”
 들으려는 것은 얼마나 큰 용기인가. 그 순간에 나는 리하의 강함을 보았다. 리하의 약함.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강한가를.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서로의 손을 잡아야 했다. 서로가 놓지 않으리란 걸 믿어야 했다. 나는 믿었고, 말했다.
 “미안해.”
 “……용서할게.”
 떨리는 목소리. 긴 한숨.
 세상에 완벽한 사과는, 용서는 없을 것이다. 듣는 사람도 만족하고 하는 사람도 맘 편해지는 그런 완벽한 건 없다. 언제나 여지를 남기고 흔적과 실밥을, 마르지 않은 시멘트 위로 지나간 발자국 같은 긴 흠집을 남긴다.
 용서는 약속이 아니다. 결과가 아니다. 기나긴 과정이다. 우리는 그 긴 과정의 문턱을 겨우 넘었을 뿐이었다.

(159~160쪽)



리하와 지민이 마주 보고 있다.

리하: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며) 다시 말해 봐.
 지민: (리하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미안해.
 리하: (긴 한숨을 내쉬고, 천천히 떨리는 목소리로 지민을 바라보며) 용서할게.
 지민: (리하를 향해) 너도 만족하고 나도 맘 편해지는 완벽한 사과나 용서가 있을까?
 리하: (고개를 가웃거리며) 글썸…… 그런데 말이야, (단호한 목소리로)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내가 이제 완전히 괜찮아졌다는 건 아니야. (가슴을 가리키며) 여기에 생긴 흠집은 없어지지 않거든.
 지민: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지.

등장인물	
역할극 대본	

② 2에서 상상해 본 등장인물의 모습과 성격을 바탕으로 ①에서 작성한 대본을 연기해 봅시다.

③ 등장인물을 연기하며 느낀 감정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독서 중 책 속으로 : 미래의 나에게 전하는 말

1. 다음을 읽고,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며 성찰 일기를 작성해 봅시다.

저는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게 좋았습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가장 행복했어요. 그날도 수업을 마치고 친한 여자 친구 두 명과 학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친구들이 다른 반 남자애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털어놓더라고요. 저는 “그래? 그랬구나” 하면서 맞장구쳐준 게 다였어요. 다음 날 교내 복도를 지나가는데 저 멀리서 다가온 남자애들 몇 명이 길을 막더니 제 얼굴을 세게 쳤어요. 그러곤 “야, 네가 내 욕하고 다녔다며? 착한 척은 다 하더니” 하면서 또 얼굴을 때렸어요. 너무 아프기도 했지만 다른 반 친구들이 보는 데서 맞았다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이튿날엔 학교도 가지 않았어요. 무슨 상황인지 확인하려고 그때 얘기했던 여자애들한테 카톡을 보냈거든요? 제가 욕을 한 주동자라는 거예요. 둘이서 입을 맞춘 거죠. 황당하고 분하고... 밤늦게 반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집 근처 초등학교라며 잠깐 나오래요. 이 친구한테라도 진실을 알리고 싶어 빠르게 나갔더니 전날 저를 때린 애들이 있었어요. 저를 쳐다보던 그 눈빛,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애들은 제게 수없이 주먹질을 했어요. 분이 풀리지 않는지 돌아가는 길에도 욕을 퍼부었어요. 다 떠나고 저 혼자 운동장 구석에 누워서 영영 울었어요.

또 맞을까봐 며칠 동안 등교를 못했어요. 그동안 오해는 더욱 커졌고, 제가 억울함을 호소해도 그 누구도 들어주질 않았어요. 그냥 다 사이 좋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애들은 자꾸 편을 나뉘요. 제가 대체 뭘 잘못된 거죠?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남은 학교생활을 버틸 자신이 없어요.

-출처 : 여성조선(2021.3.22)

(<http://woman.chosun.com/mobile/news/view.asp?cate=C01&mcate=M1001&nNewsNumb=20210375005>)

책 속의 내용과 관련된 경험

독서 일지를 참고하여, 과거에 직접 보거나 뉴스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했던 학교폭력에 대한 경험을 적어 봅시다.

- 얼마 전 뉴스에서 ○○지역의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례를 접한 적이 있다. 잘 해결이 되지 않아서, 피해자의 학부모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다고 한다.
- 작년에 같은 반 친구 중 한 명이 여러 명의 친구들로부터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과거 나의 모습 돌아보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학교폭력을 경험했을 당시에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 신문기사나 뉴스에서 학교폭력 사례를 접했을 때는 사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 교실에서 다른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나에게까지 피해가 올까 봐 모른 척했었다.

2. (가)는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다운의 모습이 드러난 부분이고, (나)는 다양한 가치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앞에서 작성한 성찰 일기와 소설 속 지민의 행동을 참고하여 미래의 나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작성해 봅시다.

(가) 그다음 날 정다운은 수학 수업을 빠졌다. 한재희네 무리가 모두 듣는 수업이었고, 학원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 수업이기도 했다.
 수학 선생은 다운의 지정석이나 다름없는 중앙 앞자리 빈 책상에 프린트를 내려놓았다.
 “결석하면 프린트 안 주는 거잖아요.”
 박서영이 불만을 표시했지만, 수학 선생은 박서영을 한 번 지그시 보는 걸로 대답을 대신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는 모양이었다.
 나 또한 이 상황에 대해 의견을 표시했다. 정다운의 자리에 놓인 수학 프린트를 챙기는 것으로.
 “그저 왜 가져가?”
 박서영이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답을 찾으려 했다. 나의 양심이 말하는 바를 들으려 했다. 왜 프린트를 가져왔나. 왜 굳이 튀는 행동으로 정다운을 두둔하려 하고 있나.
 첫째, 정다운이 그런 취급을 받을 정도로 잘못을 했나? 한재희하고 무슨 일이 있었다 해도, 한재희 아닌 다른 사람들까지 정다운에게 그래도 되나?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둘째, 그 애들과 부딪치기 싫다는 이유로 다운을 멀리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논리대로 어떻게 행동하든지 그게 내 행동을 좌우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절대.
 셋째, 그래도 그렇게 눈에 띄게, 보는 앞에서 프린트를 챙기고 그럴 필요까지 있었나?
 있었다. 왜 조심해야 하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44~45쪽)

(나)

공감	공평	관심	긍정
도전	믿음	반성	배려
보살핌	사랑	솔선수범	실천
약속	용기	우정	자신감
자유	적극성	정성	착한 마음
책임	친절	행복	함께하기

① (가)에 나타난 지민의 행동에 어울리는 가치를 (나)에서 골라 보고, 그 까닭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 지민의 행동에 어울리는 가치: 용기
- 선정한 까닭: 주변의 상황에 휘둘리기보다는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양심의 소리에 따라 실제로 행동하는 모습이 용기 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② 만약 내가 (가)의 지민이라면 어떻게 행동했는지 생각해 보고, 나에게 필요한 가치를 (나)에서 골라 봅시다.

만약 내가 지민이었다면 나는 다른 아이들과 얽히는 게 귀찮아서 특별히 다운이의 일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런 나에게 필요한 가치는 바로 관심 (이)야.

③ 앞으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고, 미래의 나에게 건네는 조언의 말을 작성해 봅시다.

- 미래의 나에게 한마디
- 누군가 괴롭히는 걸 보고도 그냥 지나치지 마. 그게 옳지 않다는 건 너도 알고 있잖아?



독서 후 토론과 논술 : '세 번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까닭

<작가의 말>에서 작가는 흔히 알고 있는 '방관자'를 '세 번째 사람'이라 이름 붙이며, 학교폭력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우리가 모두 세 번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까닭'에 대해 생각해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1. (가)는 <작가의 말>의 일부이고, (나)는 학교폭력이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주장하는 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는 '방관자 효과'에 대한 글입니다.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여 '세 번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쓰고 난 뒤에야 발견했습니다. 당사자 두 사람 말고 그 곁의 세 번째 사람이 상황을 바꾼다는 것
 을요.
 당사자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차마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지민에게
 그것은 다운이고, 또 리하였지요. 과거에 묶인 채로 고정되어 있던 지민과 지호의 관계는 이들로
 인해 달라집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는 지민이 세 번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리하와 지호 사이에서, 다운과 선
 배, 리하와 다운, 다운과 재희의 관계에서 그랬지요. 지민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곳곳이 그 역할을
 해냈기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가능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뒤로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다고 고개를 돌려 버릴 수도 있고요. 그
 러나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도 있습니다. 숨결과 온기가 느껴질 만큼, 변화를 가져올 만큼.
 책 속에서만 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 번째 사람이거나, 세 번째 사람이 될 수 있거나, 세 번째 사람이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167~168쪽)

(나) 최근 뉴스에서 연일 터지는 스포츠계와 연예인들의 학교폭력 이슈가 시끄럽다. 여태껏 없던 일
 들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쉬쉬하거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눈 감아 왔던 일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따돌림부터 신체적 폭력, 경제적 갈취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
 나는데 그만큼 피해자들의 상처와 트라우마는 깊고 쉽게 나아지지 않는 만큼 잠깐의 반짝 뉴스에
 서 다룰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신건강의 영역에서 우리는 왜 학교폭력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가? 그 대답은 무엇보다 피해자
 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그동안 학교폭력으로 인해 가해 청소년에게 보복성 위해를 가하거
 나 자살을 택한 청소년들을 보아왔다. 가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다쳤을 때 또는 죽음을 택한 피해

자의 선택에 대해 누구도 쉽사리 “아무리 그래도……”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없을 만큼 피해자의 상처는 깊고 크다. 학교 폭력으로 인한 상처는 단순히 청소년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신뢰 하락 등 지속적으로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일이다.

트라우마라는 이름으로 남아 불면과 우울, 중증 정신질환이 발병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있는 것
 을 현장에서 종종 보게 된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학교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방관
 자 역시 피해자만큼은 아니어도 그들의 삶에 악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내가 피해자를 감싸면 나 역시도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굴복
 한 경험, 나를 보호하기 위해 또 다른 가해자가 되어 버린 경험은 자신에 대한 자책과 부끄러움으
 로 남아 사회 전체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학교폭력이 청소년기 학교 현장
 을 벗어나면 사라질 듯하지만 대학교, 직장까지 그와 비슷한 경험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에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출처 : 전북일보(2021.3.30)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105182>)

- (다) 1964년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미국 뉴욕시 퀸스 자신의 집 근처에서 강도를 만나 격렬하게
 저항하다 사망한 사건이 있다. 그 당시 38명의 이웃이 그녀가 죽어가는 현장을 목격했거나 소리를
 들었지만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사회를 충격으로 빠뜨린 제노비스 사건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서울에서 10대들이 나홀 동안 여중생 친구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전북에서 초등생 1명을 약 9개월여간 중학생 3명이 집단 성폭행한 사건' '서울시내 한복판
 에서 20대 남성이 10대 학생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뒤 숨지는 사건' 등 제노비스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폭력이 우리 주변 또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보여지고 있다.

제노비스 사건 등 위 사례에서 보여준 가장 큰 사회적 충격은 사건 현장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을 보고 있었음에도 아무도 경찰 등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놀라운 현상은 '방관자 효과'로 표현할 수 있으며 38명 등 적은 수라 할 수 없는 주변 사람들
 이 경찰신고를 하지 않은 원인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

'방관자 효과'란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게 되는 현상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이다.

'다른 사람이 신고하겠지' 또는 '나와 상관없는 일에 괜히 끼어들어 불이익을 보진 않을까'하는 방
 관자적 시선과 행동이 폭력의 잔인함과 대담함의 도를 키워가는 원인 중에 하나임을 명심해야 한다.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698756>)

2. 다음의 절차를 바탕으로 ‘우리가 모두 세 번째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친구들의 의견을 정리해 봅시다.

- ① 1차 발언 :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밝힙니다. 자신의 입장만을 밝히며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 반박하지 않도록 합니다.
- ② 2차 발언 : 1차 발언에 관한 생각에 반박하거나, 질문하는 등 반론을 제시합니다. 자신이 질문을 받아도 즉시 발언하지 않고, 자신의 차례가 오면 발언합니다.
- ③ 3차 발언 : 순서대로 최종 마무리 발언(소감 제시 등)을 합니다.

이름	의견 정리
수민	우리 모두가 세 번째 사람이 된다면 피해자 한 명을 다수의 가해자가 둘러싸고 있는 ‘인간지옥’이 아니라, 가해자가 있더라도 다른 학생들이 피해자를 함께 방어해주는 ‘보살핌의 원’이 조성될 수 있다.

3. 자신의 의견을 가장 잘 이야기한 친구를 뽑아 보고, 그 까닭을 이야기해 봅시다.



독서 후 토론과 논술 : 지호에게 전하는 편지

1. 소설 속 지민이가 되어, 지호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해 봅시다.

“그럼 지호 주소도 알 수 있어? 진짜 주소나 아니면 이메일이라도.”
 “그건 왜?”
 “편지 쓰려고.”
 갑작스레 떠오른 생각이었지만 말로 하자 확신이 들었다.
 지금껏 나는 지호에게 직접 닿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지호를 위해 행동한다고 하면서도 진짜 지호에 대해선 알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감당할 수 없을까 봐, 절망스러울까 봐.
 그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피하고 싶지 않아졌다. 방향을 바꾸면 된다. 지호에게 초점을 맞추고 짐작하고 전전긍긍하는 대신 내 이야기를 하는 거다. 다온과 텃밭과 리하에 대해서, 내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 편지를 쓰고 싶었다.
 내 느낌을, 질문을, 어설픈 답들을. 당위나 논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161쪽)

[선생님 참고 자료_편지 쓰기]
 - 주인공을 포함한 등장인물에게 독서편지를 쓰면 자기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하여 솔직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즉 주인공이나 다른 등장인물과 마음의 대화를 나누면서 진지한 비판과 토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형식의 감상문 쓰기는 좋은 책을 무턱대고 읽는 태도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과 비교하면서 책이 주고자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독서력을 키울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

뜨인돌

www.ddstone.com

뜨인돌출판(주) 10881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337-9
전화 (02)337-5252 | 팩스 (031)947-5868
뜨인돌 블로그 blog.naver.com/ddstone1994
뜨인돌 페이스북 www.facebook.com/ddstone1994
뜨인돌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ddstone_books